



#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기독교 성령쇄신 미주 한인 봉사 협의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U.S.A.

## **미주 한인 청년 학생 신앙 대회 NSC와 별도 개최**

### **NSC 미 전국 성령 대회 6월 26-27일 보스톤에서**

미 전국 2004년 성령 대회와 병행하여 개최될 예정이던 미주 한인 청년 학생 신앙 대회가 NSC와는 독립적으로 열리게 된다. KSC 계획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대회 장소의 위치와 교통 편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심사 숙고한 끝에 계획을 취소하고 이를 NSC에 통보했다. 따라서 NSC가 주관하는 2004년 미 전국 성령 대회에는 KSC가 단체로 참가하지 않고 각자 개인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한편 KSC는 따로 일정과 장소를 정해 미주 한인 청년 학생 신앙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보스톤 지역의 여러 캠퍼스와 가까운 거리로서 많은 학생들이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위치를 우선적으로 고려

해서 장소를 물색해 독립적인 신앙대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쇄신가족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로 KSC의 새로운 계획이 성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쇄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KSC 후원회원이 되면:

1. KSC Newsletter를 직접 받습니다.
2. KSC 출판도서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3. KSC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 됩니다
4. 매년 11월 1일 회원들을 위한 특별 미사 봉헌.

### 2004 쇄신 세미나 일정

3/19-21	동북부 봉사회: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사무장(이데레사) (201-947-4717)
3/25-29	Calgary 공동체: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김 마리아 (403-988-4928)
4/16-18	KSC: (동중 1차) 성가정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이마리아 (703-680-9517)
4/30-5/2	KSC: (동부 3차)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 이관우 부제 (267-968-4428)
5/24-27	Denver 공동체: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박 리사 (303-403-4902)
6/4	동북부 봉사회: 동북부 성령대회. 봉사회 사무실 (201-947-4717)
6/25-27	NSC: 미전국성령대회 (보스톤), <a href="http://www.nsc-chariscenter.org">www.nsc-chariscenter.org</a>
7/29-31	Dallas 공동체: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민 라파엘(214-437-8784)
9/15-23	KSC: 2004 한국 순교성지 순례. 신 요안나 (440-835-3219)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mailto:news@kscusa.org) <http://kscusa.org>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전국 각지에서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미 기도회 봉사자와 회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인사를 드립니다.

KSC는 2004년에 3대 과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하나로 우선 보스톤에서 6월 25일에 개최되는 NSC 주최 미 전국성령대회와 병행하여 미주 청년학생 신앙대회를 열고자 하였으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KSC 주관으로 미주 한인 대학생 신앙 대회를 열고, 장차 대학 선교를 위하여 미주 각 대학 교정을 연결하는 Campus Minister Network 형성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희망인 청년 학생들의 신앙을 위하여 Campus Ministry Network 형성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중에 세금보고를 위한 2003년도 후원금 (Donation)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2월 말 현재 접수 내역

유 세실리아 (MI)	100.00
김 안젤라 (NC)	100.00
나 헤레나 (MD)	200.00
최 올리안나 (FL)	00.00
문 루시아 (Calgary)	100.00
최 루시아 (NC)	500.00
김 안나 (MN)	2,000.00
Columbus (GA) 기도회	200.00
허 길문 (Toronto)	100.00

**KSC 동부 (3차)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

일 시 : 2004년 4월 30일(금) 오후 5시 ~ 5월 2일(주일) 오후 4시  
 장 소 : 뉴튼 분도 수도원 (289 Rt.206 Newton, NJ 07860) 전화: (973) 383-2470  
 사용공항 : Newark International Airport, NJ  
 회 비 : \$200 (Check : Payable to KSC 또는 St. Paul's Abbey)  
 보 낼 곳 : KSC HQ 7031 Kenmare Dr., Bloomington, MN 55438/ Fax: (952) 942-6290  
 접수마감 : 2004년 4월 27일(화) 선착순 50명 / e-mail접수: eec3000@att.net  
 참가문의 : 이관우 부제: (215) 646-3390, (267) 968-4428 / 박요셉: (718) 358-6155  
 봉 사 자 : 박 창득 몬시뇰, 안 성철 신부, 이 창재 부제, 이 관우 부제, 최 용구 부제, 박 요셉 주 최 : KSC (미주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한인 봉사 협의회)

**KSC 동부(3차)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 참가 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성 별: 남( ) 여( )
본 명: (한글)	(영문)	나 이: 만 ( ) 세
전 화: (집) ( )	(Cell) ( ) -	e-mail:
주 소:		
참가비 납부:	소속 공동체:	
성령 안의 삶 세미나에 참석 하였나요?	참석 회수 ( ) 번 참석, 아니오 ( )	
본인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합니다.		
신청 날 짜: 2004년 월 일		
신청자 서 명: _____		
Official Memo: _____		

## 과달루페 성지 순례 여정

과달루페의 어머니! 저의 생명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영원까지 주님의 선택이며, 선물이며, 사랑입니다.

심 로사, Hampton, VA

+ 찬미 예수 그리스님!

비행기 여행을 별로 즐기지 않는 제가 가까이 지내며 존경하는 교우(언니)의 권유로 2월에 KSC의 과달루페 순례단에 참가하여 멕시코 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어디서나 내가 기도하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멕시코에 까지 가서 주님과 성모님을 느껴야 하나?' 생각 하였지만 주님께 순명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에서 모두 모여 순례 버스를 타고 제 주위를 돌아 보았을 때 참가자중에 손이나 목에 기브스를 했거나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절룩거리는 분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떻게 순례여 행을 하시려나?' 생각되었지만 저는 곧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열성이 주님께 아름다울 것이며, 반면 우리가 비록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장애자인지 깨닫지 못함을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 조금 특이하다는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시작된 순례여행은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지만 긴 역사 전통과 국민 90%가 가톨릭 국가인 멕시코의 실상을 배우고 느끼면서, 우리는 풍족하고 부유한 미국에서 여유 있게 살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배려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순례여행의 절정은 한국 수녀님 들이 세우신 여자 중고등학교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 학교는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의식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교육하는 소녀의 마을, 순전히 은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강당을 꽉 채운 4000 명의 어린 아이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긴 방황이 끝남을 또한 보았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우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보다는 난폭한 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로 인한 사랑의 결핍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 수록 더욱 제게 부각되는 아픔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을 읽고 또 읽어도 제 가슴속에서 처음 가졌던 의문이 가셔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한 제 앞에 그 4000명의 어린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잠재우는 내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태껏 저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제 삶의 존재를 알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죄책감이 하느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을 가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생명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영원까지 주님의 선택이며, 선물이며, 사랑입니다.

순례여행의 마지막 날, 과달루페 어머니 앞에서 조용히 통곡을 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제가 얼마나 속 썩여 드렸는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주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이렇게 기르시고 성장 시킨데 대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저는 과달루페 어머니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고, 무엇이 저에게 필요한지 아시는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께 저를 더욱 가까이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여행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단체 버스에 타고 있던 저는 참으로 영적인 불구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불구자인지 고백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의 남은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 그동안 막혀있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살립니다. 지금까지 이 못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작은 보답이지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아멘!

## 인간적인 기도 보따리는 뒤 편에 둔 채 성모님께 향한 사랑만을...

허 미카엘라, 캐나다 칼가리 본당

대한민국, 내 나라에서 그저 나 잘난 줄만 알고 살던 나에게 초기 이민 생활은 낯설기만 하고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 홀로 서기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하느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에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나의 욕구를 아셨던지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나를 성지 순례로 인도해 주셨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성모님께서 불려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이전의 경험으로 알고 있어 가는 날까지도 꼭 뵙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모님께 내려 놓을 인간적 기도 보따리를 잔뜩 싸 들고 순례 길로 향했다.

멕시코 시티, 우리나라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도시 모습과는 달리 넓은 광장에 자리잡은 웅장한 성당 입구에 들어서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멘트 바닥을 기어서 성당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에서 내 신앙을 반성하며 성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인디언 모습의 과달루페 성모님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기도하러 무릎을 꿇었을 땐 처음의 내 의도와는 달리 내가 가지고 간 인간적 기도 보따리는 뒤 편에 둔 채 성모님께 향한 사랑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 스스로도 의아하게 느껴졌다. 성당 안에서 미사를 드릴 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나도 모르게 “성모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며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왜 이러지?”하며 기도 끝을 부정하곤 했다. 또 하루 종일 눈만 감으면 보여지는 성모님의 모습에 너무 성전에서 성모님을 많이 봐서 그런가 하며 의심 많던 도마처럼 생각했었다.

떠나기 얼마 전부터 목 디스크가 심해져서 고생하고 있던 차에 마침 순례 일행 중에 한의사 자매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침을 놔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날 밤 그 자매님께 침을 맞고 내방으로 와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누군가의 벨 소리에 잠결에 나가보니 전날 나에게 침을 놔준 자매님이 새벽 기도 중에 나에게 빨리 약을 갖다 주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며 한약 한 꾸러미를 나에게 내밀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만 드리고 같은 룸메이트를 깨우지 않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나의 손에는 십오단 목주가 꼭 쥐어져 있었고 그 순간 나는 성모님을 가슴으로 느끼며 그치지 않는 울음으로 감사하며 아침을 맞았다.

다음날 한국 수녀님들께서 운영하시는 Chalco 여학교로 가는 도중 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Sundance를 보며 다시 한번 당신을 정말로 여러 방면으로 느끼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 드렸다. Chalco 여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곳 여학생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공연과 그들의 티없는 웃음 속에서 수녀님들의 노고와 희생을 알 수 있었고, 그 동안 너무 인간적인 것들에만 연연하며 살던 내가 부끄러워지며 반성하게 되었다. 이번 과달루페 성모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성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마음 깊이 느끼게 해주셨고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해주었다. 이번 성지 순례에 많은 것을 보여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 드리며 언제든지 부르시면 “예”하고 순명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순례에 동행해서 우리를 많이 울리시고 신앙의 나태함을 일깨워주신 두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인 수녀님의 소나무 연가 중 한 구절로 성지 순례의 감상을 대신하고자 한다.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당신을 선택하며  
온 몸과 마음이  
송진 향내로 가득한 행복이여

